

호돈의 미국 대선 이후 대중 스스로 변화를 쟁취해야 한다

관련 기사 11면



프리드리히 엥겔스
탄생 200주년
엥겔스의
혁명적 사상

5~8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 대선과,
트럼프가 일으킨
정치적 지각변동

11면

전환기의 중국 경제
시진핑의 '쌍순환' 전략은
성공할 수 있을까?

4면

폴란드 사회주의자가 전한다
낙태권 시위가
나라를 변화시키고 있다

10면

돌봄전담사
파업을
지지하라

12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대한다

2면

영국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전 대표 축출 시도
당이 맛이 갔음을
보여 준다

9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대한다

김승주

문재인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11월 9일까지가 의견 수렴 기간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란 죄질이 특별히 나쁜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거나 다수의 약자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 또는 가해 기업이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현재 하도급법, 제조물 책임법, 독점규제법 등 약 20개 법률에 도입돼 있다.)

흔히 환경 파괴나 산업재해, 대형 참사 예방 대책의 하나로 다뤄진다. 미국의 담배회사들이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알리지 않은 것 때문에 수십조 원 규모의 천문학적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던 것이 그 사례다. 21대 국회에서는 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 세월호 참사와 가슴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항의 속에서 이 제도에 대한 관심과 지지도 커졌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대상을 상거래 활동 전반으로 확대하고 최대 5배의 손배액을 물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른 법률의 손해배상 책임 조항보다 우선 적용된다.

언론 개혁

문재인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 상법상 회사인 언론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부주의)에 의한 허위보도(가짜뉴스)를 포함하기로 해 논란을 낳고 있다. “최근 범람하는 가짜뉴스, 허위정보 등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책임추궁 절차나 억제책이 미비”하기 때문에 언론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진보 진영 일각에서도 언론의 자유가 일부 침해되는 부작용이 있더라도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자체는 도입되는 게 맞다는 주장이 나온다. ‘아님 말고’식 보도를 일삼는 언론에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단이라고 보는 것이다.

언론 개혁은 수십 년 동안 범진보 진영의 요구였다. 사람들 사이에는 이제껏 언론이 보여 온 무책임성, 편파성, 부패상 때문에 깊디 깊은 불신이 있다. 그래서 진보진영에서도 눈에 띄는 반대는 없다.

그런데 당사자인 언론 3단체(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는 강하게 반발한다. 권력층에 대한 보도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악의적 허위보도라는 모호한 잣대... 판단 주체가 얼마든지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 비판적인 보도를 악의적 보도로 규정한 후 언론 탄압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매우 크다.”

〈미디어오늘〉과 리서치뷰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중의 반응도



2019년 4월 주요 언론단체장들과 건배하는 문재인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요인들을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갈린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찬성 답변은 51퍼센트이지만, 이 제도가 '언론의 권력 비판·감시 기능을 제약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36퍼센트, '동의한다'가 34퍼센트로 팽팽했다. '모르겠다'는 반응도 30퍼센트였다.

문재인이 언론 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런데 사용자가 안전이나 환경을 해치거나 사기를 저지른 경우와 달리, 언론에 대한 '악의적 허위 보도'(가짜뉴스) 규정은 그처럼 간단하지가 않다. 이전 정부는 물론이고, 특히 민주당이 권력층 부패 의혹 보도 자체를 가짜뉴스라는 식으로 공격을 해놓은 탓에 더욱 그렇다.

실제로 언론에 대한 법적 절차나 명예훼손 고소는 권력자들이 자신에 대한 의혹 보도를 상대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주류 언론에서 흔히 왜곡·비방의 대상의 되는 것은 노동자들이나 성소수자, 이주민, 좌파 정치인이나 활동가들인데 말이다. 막강한 권력자가 명예훼손 피해를 호소하는 당사자일 경우 관련 기관이나 재판부의 판단과정에 유·무형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컨대, 2014년 박근혜는 세계일보 기자가 청와대 비선 실세 동향에 관한 감찰 보고서(일명 '정윤희 문건')를 단독 입수해 폭로하자 “짜라시에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며 기자를 고소해 수천만 원의 배상금을 물게 했다. 심지어

일본의 한국 주재 특파원까지 고소했다. 검찰이 이같은 공격에 앞장섰다.

그러나 의혹 보도 내용이 사실과 가깝다는 것이 갈수록 확인됐고, 2016년 정권 퇴진 대중 운동이 분출하자 박근혜·최순실은 옥살이를 하게 됐다. 결국 정권이 바뀌자 검찰은 고소당한 기자를 무혐의 처분하며 “공익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다른가? 올해 추미에 아들의 군 탈영 무마 특혜 문제는 엄청나게 많은 의혹 보도가 나왔고, 그에 대한 의문들이 제대로 해소되지도 않았다. 그런데 검찰은 정권 눈치를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윤미향 전 의원과 정의연도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몇몇 오보를 짚어서 고소했다. 그리고는 의혹 보도 전체가 오보인 듯 언론플레이를 했다. 검찰의 축소 기소만으로도 혐의가 중대한데 말이다. 실은 둘 모두 조국 사태에서 조국과 친문진영의 행태를 그대로 따라한 것이다.

아예 기소를 면한 추미에의 경우에 검찰이 공식적으로 불기소했기 때문에 그간 나온 의혹 보도는 모두 '악의적 허위 보도'로 보고 처벌해야 할까? 검찰총장을 부하라고 부르는 법무부장관 아래서 검찰의 불기소를 비판하는 보도는 어떤 취급을 받게 될까?

판·검사들도 자신들의 권력이 어느 정도는 공명정대하게 보여야 더 안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러려고 하지만 결국은 체제의 질서를

지키는 기관의 일원이다. 그들도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거나 중립적이지 않다.

물론 필요한 경우에 피억압자들도 언론에 대해 사법적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박유하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를 모독했을 때 위안부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법에 호소했다. 박유하는 제국주의 편에서 활개치고 주류 언론들을 더 잘 이용할 수 있었던 반면, 피해자들은 뾰족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언론 일반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강화하는 것으로는 언론을 더 '중립적'으로 또는 피억압 대중에 유리하게 개혁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하에서 압도 다수 언론은 기업 광고에 의존하는 또 하나의 기업이다. 주류 지향 언론사들은 그 자체로 자본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제도이자 기관이다. 그래서 비록 언론마다 정치적 논조가 다르고 때때로 정의감 있는 일부 개별 기자들이 위협을 무릅쓰면서 권력자들의 비리를 캐내기도 하지만, 근본에선 어디까지나 자본가들의 관심사에 더 큰 관심을 쏟는 친자본주의 매체의 틀 안에 있게 된다.

따라서 체제 수호자인 국가기관에게 형제 격인 주류 언론을 개혁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국가는 그 통제권을 체제·정부 비판적인 좌파 매체들을 향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 사례들을 보면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대해야 한다

그동안 진보 진영은 산업재해 피해 구제나 재벌개혁 요구의 일환 등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지지해 왔기 때문에, 이번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선 환영하는 분위기가 우세한 듯하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면 겨냥하고 있는 언론 문제는 슬쩍 침묵하는 듯하다.

예컨대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선임 대변인이던 시절에 언론의 부적절한 보도들에 대한 비판을 전제로 하면서 언론에 추가적 징벌을 도입하는 것에 비판적 입장을 표했지만 이번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이유로 언론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언론에 대한 부분은 삭제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특히, 지금 이 개정안이 추진되는 맥락을 봐야 한다. 정부를 향한 의혹 보도가 쏟아지는 와중에 문재인 정부와 추미에가 추진하는 언론 처벌 강화는 옵티머스·라임펀드 등 청와대 연루 부패 의혹 보도를 위축시키거나 통제하는 것으로 이어져, 개혁은커녕 또 다른 적폐가 될 공산이 매우 크다.

자본주의 언론의 힘과 영향력에 맞서는 싸움은 자본주의에 맞서는 투쟁의 일부가 돼야 한다. 그런 투쟁은 체제의 핵심에 있는 자본주의 국가의 힘과 판단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아래로부터 건설돼야만 한다.



포퓰리즘 개혁 배신과 부패 의혹 틀어막기에 대한 환멸에 따른 지지층 이반과 국가기관 내 분열로 문재인은 취임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지만, 진보 노동계의 저항을 무마하고 있어서 간신히 옹도 폐기를 막고 있다

심화되는 문재인 정부의 위기

김문성

문재인 정부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핵심 국가기관들 사이에서 불거진 갈등과 그에 따른 이반이 적나라하게 표출되고 있다.

11월 3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치고받았다. 경제부총리는 국회에 가서 여권을 향해 항의성 사의를 밝혔다가 다음 날 철회했다.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 간의 갈등이 검사들 수백 명이 들썩일 정도로 진행된 것은 초유의 사태다. 그동안은 갈등이 생겨도 검찰이 정권의 지시를 순순히 따르거나, 검찰총장이 (상명하복을 어길 수는 없으므로) 심정적 불복의 표시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관례였다.

가령 노무현 정부 때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에 검찰총장이 불만을 표출한 일이 있었다.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동국대 강정구 교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불구속’ 수사를 하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그러자 검찰총장은 지시를 수용하지만 동의할 수는 없다며 총장직을 내던졌다.

검찰이 먼저 대놓고 정권에 반감을 드러낸 사례도 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첫해에 이른바 “검사들과의 대화” 사건이 그것이다. 그러나 지금과는 맥락이 다르다. 당시는 노무현 정부 초기에 집권세력으로부터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은 시점이었다.

당시 검찰은 검찰총장 또는 그에 준하는 급의 검사 출신 인물이 맡아 오던 법무부장관에 판사 출신이고 여성인 강금실이 임명돼 “검찰 개혁/인사”를 강조하는 것에 불만이 컸다. TV로 생중계된 대화 자리에서 노무현과 직접 마주한 젊은 검사들이 임기 초인 대

통령에게 날선 발언들을 쏟아냈다. 화통함과 언변을 과시하려고 생중계 대화의 장을 마련한 노무현은 결국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며 카메라 앞에서도 언짢은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명박·박근혜 그리고 박근혜와 유착한 사법부를 수사하면서 정권과 잘 지내 오던 검찰 수뇌부가 대통령 측근의 비리를 수사하면서 갈등이 생긴 것이다.

1년 동안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려 했던 검사들은 대부분 교통도 불편한 지방의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사표를 쓰거나 수사·감찰 대상이 돼 있다. 수사 관련해서는 사실상 식물총장 상태인 윤석열은 공개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런데 정권에 대한 이반이 평검사들로 확산된 것이다. 게다가 서울고검이 한동훈을 수사하던 정진웅을 도리어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11월 3일 추미애는 또다시 윤석열 사퇴를 압박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되는 바, 특히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자 윤석열은 간부 검사들을 모아 놓고 “검찰 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현 정권을 직격했다. 식물총장으로 임기를 채우느니 권한을 회복하거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경질해도 이젠 밀질 것 없다는 자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윤석열을 타깃으로

한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여론이 그리 좋지 않다. 무엇보다 윤석열이 청와대와 추미애의 공격을 받을수록 대중 속에서 인기가 오르고 있다. 윤석열은 올해 들어서 차기 대선 후보군 여론조사 명단에 포함됐는데, 민주당의 이낙연, 이재명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다. 최근 <오마이뉴스>가 발표한 조사에서는 윤석열 지지율이 17퍼센트까지 올랐다. 이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의 지지율을 다 합쳐도 윤석열 지지율에 미치지 못한다.

국민의힘이 자신들을 만신창이 만든 주역의 하나인 그를 반길 리 없었으나, 대안이 정 없다면 윤석열에게 구애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러나 윤석열의 인기는 그가 살아 있는 권력을 잇달아 수사하는 정치 행위를 해 온 것이 인기를 얻은 덕분이므로, 그가 국민의 힘으로 향하면 그의 인기는 물거품이 될 것이다.

윤석열을 해임하지 않으면 문재인 의 통치력에 누수가 커질 것이다. 하루만의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홍남기가 공개적으로 항의성 사의를 표출한 일이 심상치 않은 이유이다.

그러나 반대로 윤석열 해임은 문재인이 권력층 수사를 노골적으로 댔었다는 불신을 더 키울 것이다.

그러므로 윤석열을 유임하든 해임하든 문재인 정부의 위기는 가시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이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는 이유이다.

균형 재정이나, 확대 재정이나

국회에서 갑자기 사의를 표명했다 철회한 경제부총리 홍남기는 균형재정(재정 건전성 유지) 기초를 수십 년간 유지해 온 경제 관료들의 이해를 대변해 왔다.

홍남기는 코로나 발 추경 편성 여부와 재난 지원금 논쟁 등에서 확대 재정 편성에 강하게 반대했었다. 또, 인기 하락을 염려한 여당의 증세 유보 방침에도 반대해 왔다. 최근에는 건축재정 기초의 매뉴얼 격인 “재정준칙” 제정 문제로 여당과 갈등 중이다. 홍익표 등 일부 민주당 중진과 참여연대도 홍남기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문재인은 코로나19 위기로 몇 가지 반사이익을 얻어 총선에서 대승했지만 곧 지지율이 하락했고, 지금은 집권 이후 최저 지지율을 기록 중이다. 그런데도 외관상 안정을 유지해 왔던 비결에는 포퓰리즘 기초가 아직 먹힌다는 사실이 있다. 친기업·친부자 정책을 피지지만, 진보 노동계가 정권에서 이반하지 않도록 붙잡는 데에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감염병 위기나 경제 위기 국면에서는 많은 노동자·서민들이 우선적으로 국가에 대한 의존과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 다른 신뢰할 만한 대안이 없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코로나 위기와 함께 찾아온 경제 침체 국면에서도 노동계 대표적 3조직(민주노총·정의당·진보당) 지도자들은 정부와의 비판적 협력 노선을 유지했다. 이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쳐 지배계급은 노동자 투쟁을 그러저럭 통제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개혁 배신에 따른 지지율 하락과 지지층 이반, 부패 의혹을 둘러싼 국가기관 간 분열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아직은 지배계급에게 유용성이 있는 정권이다.

특히, 정부의 포퓰리즘적 기초를 뒷받침한 것은 올해 확대 재정 지출이었다. 정부는 기업 살리기 지출을 늘리면서 일부를 떼어내 보편적 소득 지원과 저소득층 지원에 사용했다. 그런데 홍

남기가 주도해 마련한 재정준칙(안)은 코로나·경제 위기로 재정 지출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 낡은 신자유주의적 가이드라인을 꺼내는 것에 불과하다. 경제 관료들과 기업주들은 지금 확대 재정에 불안과 반감을 드러내는 듯하다.

한편, 본격적인 노동개혁이 지연돼 왔다는 점도 봐야 한다. 이미 지지난해부터 노동법과 탄력근로 기간 연장 등의 개혁이 시도됐으나 결국 새로운 총선을 치르고 반년이 되도록 입법 개혁이 시도되지 않았다. 이 점도 기업주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증세 논쟁

홍남기는 재정 지출을 만회할 증세도 추진하려 한다. 이 점에서도 여당과 갈등을 빚었다.

주식 양도차익세 대상인 대주주의 규정 요건을 현행(한 기업의 지분을 10억 원 이상 가진 사람)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것이 정부 방침이었지만, 민주당이 강력 반발해 현행으로 유지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표를 의식해 한 기업의 지분을 3억 원 이상 가진 주주더러 “개미 투자자”라고 하는 것은 억지스럽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위한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6억 원 이하 주택은 일시적으로 재산세를 일부 감면해 준다는 정부 방침에도 민주당은 반대했다. 기준을 9억 원 이상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실거래가로는 10억 원이 넘는 주택들인데, 이들에게도 서민 감세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부자 증세를 정작 기피하면서 서민과 ‘개미’를 팔며 위선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정의당과 진보당은 민주당의 입장을 공개 비판했다.

전환기의 중국 경제

시진핑의 ‘쌍순환’ 전략은 성공할 수 있을까?

이정구

10월 29일 중국공산당 19기 5중전회(중앙위원회 5차 전체 회의)가 종료됐다. 중국 경제가 코로나19의 위기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올 것이며, 향후 미·중 무역전쟁은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중국 경제는 2020년 1분기에 6.8퍼센트 추락했다가, 2분기(3.2퍼센트 성장)와 3분기(4.9퍼센트 성장)에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며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국제통화기금(IMF)도 10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4.9퍼센트를 예상하면서도 중국 경제는 1.9퍼센트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처럼 중국 경제가 서방 선진국 경제보다 더 빨리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10여 년 뒤에 중국 경제 규모가 미국 경제를 따라잡을 것이란 전망이 다시 제기됐다. 중국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중심은 미국과 중국 경제가 올해와 같은 추세를 보이면 12년 내에 중국이 미국 경제를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5중전회는 14차 5개년(2021~2025년) 경제발전 계획(일명 14.5규획)의 기본 방향을 내수 중심의 성장에 기반한 ‘쌍순환’으로 정했다. 지난 5월 15일 상무위원회에서 국내 및 국제 쌍순환(国内国际双循环) 개념이 제기됐고, 7월 30일 정치국회의는 국내 순환이 주된 요소이고 국내 순환과 국제 순환은 상호 보완적인 발전을 하는 구조라고 요약했다.

중국 정부는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힘들고, 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위기에 빠진 세계경제로부터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처지다. 따라서 축소된 대외무역 부문을 내수로 보완해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쌍순환

중국 지배자들은 세계경제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내수 위주의 성장 전략을 추진한 바 있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에서 촉발된 세계경제 위기가 중국 경제를 강타했을 때에도 당시 후진타오-원자바오 지도부는 국내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2008년에 중국 정부는 4조 위안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했고, 국유은행을 통해 9.5조 위안의 자금을 시장에 배포했다. 당시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31.4조 위안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막대한 돈을 쓴 것이다.

초기에 이 전략은 성공하는 듯 보였다. 2011~2012년 유로존 경제가 다시 더블딕에 빠지고 미국 경제가 양적완화로 겨우 지탱하는 상황에서 중국 경제는 세계경제를 이끄는 견인차 구실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 경제의



순탄치 않을 중국의 내수 중심 성장 전략 낮은 이윤율, 커지는 부채, 제국주의 경쟁 격화, 노동자 투쟁 가능성 등 중국 지배계급의 앞길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10월 말 열린 5중전회

이윤율이 낮은 상황에서 민간부문의 투자가 촉진될 수 없었다. 결국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부동산 거품, 정부와 가계의 부채 증대 상황을 초래했다.

시진핑 정부는 대규모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대출을 규제하고, 기업들의 외환을 통제하며, 부실 기업을 관리하는 정책을 추진하던 때에 미·중 무역전쟁에 직면했다. 그래서 부동산 거품과 과잉생산을 점진적으로 해소할 기회를 놓쳤고,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국유기업이 중국 경제를 지탱해야 한다는 의미의 국진민퇴(國進民退) 분위기가 형성됐다. 실제로 미·중 무역전쟁 때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때 중국은 민간기업보다 국유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8년의 경제 위기 이후 중국 정부가 추진한 내수 위주의 경제 정책으로 중국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2006년 64.2퍼센트에서 2019년 31.8퍼센트로 크게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중국 경제가 내수 위주 정책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내수에 기반한 경제로 전환하려면 노동자(농민공 포함)와 농민의 소득이 증대되어야 한다. 중국에 진출한 루이뷔통과 매리어트 호텔의 수익이 회복됐고, 프라다의 중국 매출이 전년 대비 60퍼센트 증대했다는 점을 보면, 중국 최상층 부유층이 소비를 늘렸다는 점은 알 수 있다. 그러나 부유층의 소비 확대만으로는 내수 경제를 지탱할 수 없다. 올 2분기 도시 주민의 소비 지출은 지난해보다 6.2퍼센트나 줄

었다. 중국처럼 빈부 격차가 극심한 사회에서 안정적인 내수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런데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높여 주는 것은 이윤 감소로 나타난다. 시진핑 정부가 기업의 수익성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내수 위주 경제로의 전환을 오히려 가로막는 길이다.

둘째,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임금을 제공하면서도 기업 수익성을 높이려면 기술 개발 등으로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다. 중국 정부가 ‘중국제조2025’를 추진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기술집약적 산업을 발전시키는 일은 투자와 기술 습득을 위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최근 미·중 갈등에서 미국이 화웨이를 압박하며 이를 방해하는 것에서 보듯 중국 정부의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셋째,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낮은 이윤율이다. 중국 당국이 내수 경제로 전환하려 해도 충분한 이윤이 예상되지 않는다면 기업들은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 기업들은 수익성이 하락하고 은행의 부실 채권도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공공기업의 영업이익률은 5.46퍼센트로 이는 2011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지만수, “코로나19 위기, 중국경제에는 또 다른 ‘스트레스 테스트’일 뿐”)

내수 위주 경제로의 전환은 세계경제가 위기에 빠진 상황,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지배자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런 전략이 중국 경제가 더 심각한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

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터지지 않는 거품?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의 막대한 부채 증가와 부동산 거품 때문에 중국 경제가 곧 붕괴할 것이라는 예상들도 꽤 있었다. 물론 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났어도 그 위험을 감지한 금융기관이 잘 관리하고 부채를 재조정하면 연착륙도 가능하다는 반론도 있었다. 최근에는 미국 블룸버그의 수석경제학자인 토머스 울릭이 《중국, 결코 터지지 않는 거품》이라는 제목의 책을 내 중국 경제 옹호론을 폈다.

중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곧장 붕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중국 국가가 경제에 개입해 추락하는 것을 유예해 줬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중국 당국은 내수 위주의 경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기부양책을 펼 것이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 3월에도 8조 5000억 위안의 경기부양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경기부양책이 경제의 추락을 막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경기를 회복에서 호황으로 이끌지는 못할 것이다. 게다가 계속된 경기부양책 때문에 정부, 기업, 가계 등에서 거대한 규모의 부채가 생겨난 것은 여전히 커다란 위험 요소이다.

2008년 중국의 비금융부문 기업 부채는 GDP의 98퍼센트였지만, 2019년 9월 말에는 GDP의 150퍼센트에 이르렀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개별 기업의 자산이나 자본과 비교해 보면, 부채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라고 반론을 펴다. 그러나 경제 전체로 볼 때 부채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부담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중국 경제가 붕괴하지 않는다고 해서 견실하다고 말할 수 없다. 마르크스의 지적처럼, 기업이 부도가 나기 전까지는 견실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 중국 경제가 백척간두에 서 있어서 금세 붕괴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장일 수 있지만, 내부의 모순이 증대된다는 점을 보지 못한 채 견실하다고 말하는 것도 틀린 주장이다. 향후 몇 년 동안 중국 경제는 아마도 양 극단의 어느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으면서 빈부 격차는 더 벌어지고 부채는 늘어나며 경제의 활력은 더 줄어드는 상황에 직면할 듯하다.

시진핑은 내수 중심의 쌍순환을 기초로 2035년에 세계경제 대국을 건설하겠다는 중국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가 경제 위기로 치닫는 이윤율의 하락 경향 외에도 제국주의 열강의 경쟁, 노동자 투쟁이나 홍콩(과 소수민족의) 항쟁 같은 저항, 지배계급의 분열 등 때문에 시진핑의 중국몽 실현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다.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코로나19
겨울이 오는데
거리두기 완화하는 문재인 정부

★ “통행세” 물리는 구글
독점을 무기삼는
‘혁신 기업’의 대명사

★ 벨라루스
반독재 투쟁이
중대한 기로에 놓이다



청년 엥겔스



1848년 독일 쾰른 혁명 속에서 〈신라인 신문〉을 발행한 마르크스와 엥겔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탄생 200주년

엥겔스의 혁명적 사상

김인식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가난하고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한 투쟁에 자신의 삶을 바쳤다. 그는 행동가였지만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많은 시간을 쏟았다.

엥겔스는 카를 마르크스가 세 권의 《자본론》을 집필하는 데 필요한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하려고 자신이 증오하는 공장주 일을 했다.

이렇듯 50년 동안 지속된 혁명적 사회주의와 노동자 투쟁에 대한 헌신, 마

르크스에 대한 엄청난 개인적 헌신, 이 두 가지가 엥겔스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그러나 엥겔스는 결코 마르크스에 의존적이지 않았다. 최초의 노동자 정부인 파리코뮌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던 1871년에 엥겔스는 자기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는 제 생각이 거의 30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아실 테고, 그 사실이 당신에게 놀랄 일도 아닐 것입니다. … 마르크스가 여기에 없었더라도, 그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별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계급을 배신한 혁명가

엥겔스는 1820년 11월 28일 독일 라인란트의 소도시 바르멘(오늘날 부퍼탈)에서 태어났다. 그는 공장주 집안의 장남이었다. 젊은 엥겔스는 정치와 무신론 때문에 아버지와 계속 불화를 빚었다.

엥겔스는 공장 지대로 바뀌고 있는 지역에서 성장했다. 그 과정에서 노동계급도 성장하고 있었다. 그래서 엥겔스는 어릴 때부터 공장 시스템의 실체를 보며 자랐다.

엥겔스의 청년 시절 독일에서는 프로이센의 독재에 맞서는 운동들이 태동하고 있었다. 엥겔스도 그 운동과 사상의 지지자였고, 자유주의적인 독일 민족주의를 열렬하게 지지했다. 이 무렵 독일의 자유주의자들은 1830년 7월 입헌 군주제를 수립한 프랑스 혁명에 고무돼 있었다. 1830년 혁명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아주 흐릿한 그림자였다. 그럼에도 독일의 청년들은 1830년 혁명을 보고 알게 된 자유를 찾고자 했다. 이런 열망이 종종 철학적 용어로 표현됐다. 마르크스는 철학 사상의 우위를 독일의 경제적 후진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여겼다.

마르크스와 마찬가지로 엥겔스도 이런 지적 환경의 산물이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철학에 관심을 가졌다. 그들은 철학자 헤겔의 사상에 끌렸다. 헤겔은 우주가 끊임없는 발전과 변화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많은 헤겔 지지자들은 기성 제도, 즉 프로이센 국가와 군주에 맞선 투쟁이 사회 발전의 불가피한 일부라고 생각했다. 엥겔스는 청년 헤겔학파에 참여했고, 그 뒤 공산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노동계급 중심성을 이해하다

1842년 11월에 가족 회사인 ‘에르멘 앤드 엥겔스’ 사의 영국 지사에서 일하러 맨체스터에 갔을 때, 엥겔스는 이미 좌파 사상을 발전시키고 있었다.

당시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공업 경제이자 산업혁명의 무대였다. 영국 노동계급도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이었고 차티스트 운동을 통해 조직돼 있었다. 엥겔스가 영국에 도착했을 때는 차티스트 총파업이 벌어진 직후였다. 차티스트들은 임금 삭감에 반대하고 남성 보통선거권을 요구했다. 이 총파업은 최종 패배했지만 노동자들의 잠재력을 보여 줬다.

맨체스터는 랭카셔 · 체셔와 함께 파업의 중심지였다. 엥겔스는 차티스트들을 만났다. 또, 메리 번스라는 아일랜드 여성을 만나 그녀가 1863년에 죽을 때까지 사랑하게 된다. 메리는 노동계급이었으며 차티스트 운동에 참여했다. 19세기 당시 두 사람의 엄청난 계급적 차이는 오늘날보다 훨씬 더 컸을 것이다. 그러나 둘의 관계는 인습에 얽매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결혼하지 않았다. 엥겔스는 메리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 메리가 41살의 나이에 죽었을 때 엥겔스는 “내 젊음의 마지막 흔적을 그녀와 함께 묻은 것 같다”고 마르크스에게 편지를 썼다. 메리가 죽은 뒤 엥겔스는 메리의 동생 리지와 사귀었다. 부인이 죽으면 ‘훈기’가 지난 여동생과 살림을 합치는 것은 빅토리아 시대에 꽤 흔한 관행이었다. 리지는 정치적이었고 공산주의와 아일랜드 민족주의의 대의에 동의했다. 엥겔

스는 1878년 리지의 임종 자리에서 그녀와 결혼했다.

엥겔스는 영국을 여행하며 노동자들과 대화하고 공식 통계를 조사해 《영국 노동계급의 상황》을 썼다. 엥겔스의 첫 번째 책으로 대단한 책이다. 엥겔스는 이 책을 “영국 노동계급”에게 바쳤다. 혁명적 변화의 주체인 노동계급에 대한 평생의 헌신이 시작됐다.

엥겔스는 자신과 마르크스의 정치적 · 지적 관계를 말하면서 “[자신의] 운명은 부차적 위치에서” 활동하는 것이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그러나 엥겔스는 “부차적 위치”가 아니었다. 그는 독자적인 혁명적 사상가였다. 1844년에 마르크스와 친교를 나누기 시작하던 때 엥겔스는 이미 자신의 가장 훌륭한 책 중 하나인 《영국 노동계급의 상황》을 쓰고 있었다.

이 책은 노동자들이 어떻게 살고 죽는지를 보여 주는 동시에, 이런 비참한 상황이 어떻게 바뀔 수 있고, 바뀌어야만 하는지를 설명했다.

엥겔스는 자본주의를 분석하는 데서 출발했다. 산업혁명이 어떻게 낡은 노동 방식을 바꿔 임금 노동자 계급(프롤레타리아)을 창출하는지를 고찰했다. 기계를 도입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로 발전한 영국에서 새로운 노동계급이 인구의 거대한 부분이 됐다.

엥겔스는 이 도시들에서 노동계급의 삶의 조건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했다. 당대 언론 보도, 공식 조사, 심지어 초기 맨체스터 빈민촌의 도표를 이용했다. 그는 노동자들의 식습관도 서술했

다.

엥겔스가 서술한 이런 비참함의 근저에는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이 있다. 경쟁 때문에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에게 되도록 적게 임금을 주려고 하는 반면, 노동자들을 더 일하도록 쥐어짠다. 엥겔스는 공장 소유주 계급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나는 영국 부르주아지처럼 몹시 타락하고 이기적이며 구제불능의 저질이며 그 내부가 썩어 진보가 불가능한 계급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영국 노동계급은 1830년대와 1840년대에 위대한 차티스트 운동을 통해 싸우며 자신들의 생활 조건과 노동 조건을 지키고자 했다. 이 운동 덕분에 엥겔스는 자본주의가 노동자들 간 경쟁을 낳지만, 그와 동시에 노동자들이 고용주에 대항하기 위해 조직하고 결집하기도 한다는 점을 이해하게 됐다.

1844년 여름 파리에서 엥겔스는 마르크스를 만났다. 두 해 전에도 둘은 잠깐 만난 적이 있었지만, 두 사람의 평생 협력이 시작된 것은 1844년부터였다. 이때 엥겔스는 이미 마르크스보다 경제학을 더 잘 이해하고 있었고, 철학과 공산주의 정치에 대해서도 상당한 배경 지식을 갖고 있었다. 마르크스의 전기 작가 프란츠 메링은 경제학을 “처음 제공한 쪽은 엥겔스이고, 받은 쪽은 마르크스”였다고 썼다. 마르크스가 프랑스 혁명에 바탕을 두고 투쟁과 시대의 요구를 이해하게 됐다면, 엥겔스는 영국 산업에 바탕을 두고 그렇게 했다.

마르크스와 협력해 역사유물론의 기초를 놓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첫 공저는 1844년에 쓴 〈신성가속〉이었다. 엥겔스의 세계관을 경제결정론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곡해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 둘 다 정치나 이데올로기가 역사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엥겔스는 〈신성가속〉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역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막대한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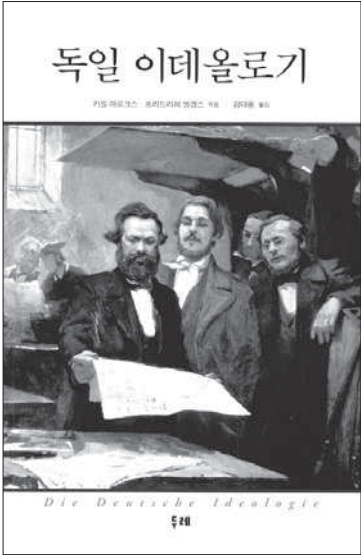
를 소유하지도, 투쟁을 벌이지도 않는 채, 부를 소유하고 투쟁을 벌이는 것은 현실의 인간이다. … 역사는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는 인간의 활동일 뿐이다.” 엥겔스는 생애 마지막까지 이런 세계관을 유지했다.(더 자세한 것은 이원웅, ‘변혁당 이제유 씨의 엥겔스 곡해에 대한 반박’, 〈노동자 연대〉 314호를 보시오.)

1846년에 두 사람은 〈독일 이데올로기〉를 썼다. 〈독일 이데올로기〉는 그들의 유물론적 역사관을 가장 폭넓게 설명한 책이었다. 그 책은 비록 완성되지도 않았고 두 사람의 생전에 출판되지도 않았지만, 그들이 당시 철학을 어떻게 생각하고 다뤘는지를 보여 준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특정한 역사적 시대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관념이 아니라 이런 관념들이 생겨나게 한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조건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의 출발점은 계급 사회의 역사적 발전을 이해하고 이런 사회 변화 과정에

서 사람들의 관념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해하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역사의 진보가 필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인간이 실제로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지도 않았다. “환경이 인간을 만드는 만큼 인간도 환경을 만든다.”

그리고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모든 계급 사회에서 부를 소유한 계급— 지배계급—이 그 사회의 사상도 통제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지배계급은 부를 생산하는 수단과 그런 부의 분배를 정당화하는 사상의 생산도 통제한다. 반대로, 노동계급은 재산이 없다. 자신의 노동으로부터도 소외됐다. 노동계급이 혁명을 만들어 생산수단을 집단적으로 통제할 때만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는 혁명적 계급이지만, 자신이 생산하는 부를 통제할 수 있으면 그전에 혁명을 만들어야 한다. 혁명을 만드는 과정에서만 프롤레타리아는 온전히 혁명적이 되거나 ‘공산주의 의식’에 도달할 수 있다.



1848년 혁명에 참여하다

공산주의 사상을 토론하면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그런 사상에 기반한 조직을 건설하려고 했다. 그들은 1846년에 ‘공산주의자통신위원회’를 만들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엥겔스는 1846년 8월 파리로 가서 (마르크스는 파리에서 추방됐다) 의인동맹 내 독일 장인들을 조직하고 프랑스 노동자 운동과 얼마간 접촉을 만들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노동자들 속에서 조직을 건설하려면 운동 내 다른 사회주의 경향들과 예리하게 논쟁해야 했다. 두 사람은 카를 그른의 추종자들이 주도하는 이른바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을 공산주의 사상의 경쟁자로 보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맑은 급진적으로 하지만, 자본주의 내의 두 주요 계급 간 근본적 적대를 경시하고 “인류의 보편적 사랑”을 선언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을 독일의 지체된 경제·사회적 발전의 산물로 봤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사회주의가 실질적인 호소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1847년 6월 의인동맹 런던 대회에서 단체명을 공산주의자동맹으로 바꾸고, 슬로건도 ‘모든 사람들은 형제이다’에서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런던 대회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에게 강령 초안을 작성하도록 요청했다. 그것이 두 사람의 가장 유명한 공동 작품이다 그들의 정치에 대한 가장 명확한 진술 중 하나로 남게 된 〈공산당 선언〉이다. 그 초안은 엥겔스가 쓴 “공산주의의 원리”였다. “공산주의의 원리”는 문단 형태로 쓰인 아주 짧고 간결한 소책자로, 엥겔스의 명쾌한 문체를 보여 준다.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의 원리”에 기초해 1848년 초 독일어로 출판된 최종 문서를 작성했다.

“공산주의의 원리”와 《공산당 선언》은 임박한 혁명을 기대하면서 쓰였다. 경제 상황과 정치적 불만이 심각해지자 ‘공산주의자통신위원회’를 만들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1847년에 경제 위기가 식량 폭동으로 이어졌고, 1848년 2월 파리에 바리케이드가 세워졌다. 프랑스 국왕 루이 필리프는 권좌에서 쫓겨나 영국으로 도망쳤고 제헌의회가 소집됐다.

혁명은 유럽 대륙으로 확산됐다. 헝가리에서는 러요시 코슈트가 이끄는 민족주의자들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에 맞서 독립 전쟁을 벌여 민주적 의회를 수립했다. 영국의 마르크스주의 역사가 에릭 홉스봄은 오늘날의 유럽 10개국 국토의 전부가 일부가 포함되는 지역에서 쓰러지지 않은 정부는 단 하나도 없었다고 썼다. 엥겔스는 이런 사건들의 목격자이자 참가자였다.

프랑스에서는 6월에 급진적 노동자들과 부르주아 자유주의자들 사이에서 격렬한 투쟁이 벌어졌다. 두 세력은 2월 혁명 때는 같은 편이었다. 파리 노동계 6만 명이 바리케이드를 쌓고 의회에 맞섰다. 과거의 부르주아 혁명들과 달리 이제는 노동계급이 상당한 세력을 이뤘. 흔히 부르주아지의 요구를 뛰어넘는 독자적 요구를 제기하며 경제제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시위는 진압당했고 약 3000명이 살해됐다. 엥겔스와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이 자유주의 부르주아 세력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배웠다.

독일 부르주아지의 소심함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1848년 4월에 독일 라인란트의 쾰른으로 돌아왔다. 쾰른은 공산주의자들의 영향력이 강한 곳이었다. 두 사람 모두 혁명을 수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쾰른 공인위원회

의 위원으로 선출됐다. 엥겔스는 프로이센의 침공에 맞선 전투에 직접 참가했다. 1849년 혁명이 패배해 스위스로 피신했기 전까지 네 번의 전투에 참가한 뛰어난 군인이었다. 그 뒤에도 엥겔스는 군사 전략에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글도 많이 썼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6월부터 〈신라인 신문〉을 발행했다. 신문의 부제가 ‘민주주의의 기관지’였다. 쾰른은 프로이센의 지배를 받았지만,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이 그곳을 점령했을 때부터 내려온 언론 자유법들이 있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자신들을 민주주의 운동의 극파파로 여겼다. 그들은 주변 다람이 반동적 봉건 세력과 새로운 민주주의 세력 사이에 존재한다고 봤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오래 전부터 독일 부르주아지를 경멸했다. 그들이 자신들의 재산이나 삶을 위태롭게 할 태세가 돼 있지 않은 채 혁명의 열매만을 원한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혁명이 벌어지자 독일 부르주아지가 옛 질서보다 신중 노동계급을 더 두려워한다는 점이 점점 분명해졌다. 그들은 소심했고, 무엇보다도 프랑스에서 전개되는 상황을 극도로 두려워했다.

파리의 사태는 유럽 전역에 혁명을 고무했지만, 그중에서도 독일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독일에서는 혁명적 열정이 고양됐다. 독일의 자유주의 지도자들은 프랑스 2월 혁명의 혜택을 봤다. 왜냐하면 독일 지배자들이 중대한 저항을 받지 않았는데도 두려움에 떨며 베를린 의회 신실, 겸열 폐지, 독일 통일 약속 등을 양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파리의 6월 사태를 보며 소심함을 드러냈는데, 대중에게 너무 많이 양보하면 ‘무정부’ 상태로 나아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자유주의자들은 새로운 독일의 안정과 질서를 원했다.



1848년 6월 파리 봉기

실제로 프랑스의 6월 봉기 앞에서 독일 운동은 분열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와 〈신라인 신문〉은 노동계급 투사들을 전적으로 지지한 반면, ‘온건한’ 민주주의자들은 노동계급 투사들을 반대하고 공산주의자들을 공격했다.

9월에 프로이센이 쾰른에 계엄령을 선포했고, 저명한 연설가들과 조직가들 여러 명이 체포됐다. 엥겔스는 경찰소환을 피해 고향 바르멘을 떠나 벨기에를 거쳐 프랑스로 갔다. 엥겔스 지방 수배 전단이 붙었다. 1849년 1월 말에 엥겔스는 자신이 불기소됐다는 얘기를 듣고 독일로 돌아갔다. 혁명의 여파는 끝나지 않았지만 현저히 약해지고 있었다. 1849년 5월 초 봉기가 일어났지만 결국 패배했다. 〈신라인 신문〉은 폐간됐고 독일 혁명의 종말이 다가왔다. 이때 엥겔스는 혁명의 최후 보루인 팔츠에 있었다.

연속혁명

이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혁명과 그 혁명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1848년 혁명은 노동자 혁명이 아니라 부르주아 혁명이었다 — 독일 같은 나라들에서 자유주의적 자본가와 의사·변호사 같은 중간계급이 혁명의 과정을 결정했다는 뜻이다. 물론 가난한 농민 계급, 장인, 신흥 노동계급의 지지를 받았지만 말이었다.

그러나 1848년 혁명과 초창기 부르주아 혁명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처음 부르주아 혁명이 일어났을 때 노동계급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1848년에 노동계급은 영국과 프랑스에서 성

장하는 중요한 세력이었고, 독일에서도 점차 그러고 있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부르주아지가 혁명을 원했지만, 노동계급이 정치 무대에서 능동적 세력이 되자 매우 겁을 먹고 진지하게 투쟁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래서 민주주의자들과 부르주아지 내 다양한 민주주의 지지자들은 또렷미지근한 혁명가들이었고, 최종 대결에서 발을 빼고 옛 질서와 타협하는 편을 택했다고 봤다.

엥겔스는 16세기 독일 농민들의 무장봉기를 분석한 〈독일 농민 전쟁〉이라는 소책자를 썼다. 엥겔스는 1525년의 사건들과 1848~1849년 혁명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자 했다. 엥겔스는 마르틴 루터가 1848년 혁명 때 부르주아지와 비슷한 구실을 했다고 썼다. 반면, 농민들의 지도자 토마스 뮌처는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했지만 농민군의 무기가 형편없어 패배했다. 엥겔스는 전쟁의 양면이 외견상 종교적 관념 때문에 싸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서로 다른 계급들이 형성되고 있었고 그들이 서로 싸운 데에는 물질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 농민 전쟁〉은 역사유물론을 체계적으로 적용한 역사서였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노동자 혁명이 부르주아 혁명의 뒤를 이어야 하고, 노동자 권력을 쟁취할 때까지 ‘연속 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 세기 뒤에 러시아 혁명이 레온 트로츠키가 이 분석을 확장했다. 트로츠키는 반(半)봉건적인 후진적 러시아에서 노동자들이 혁명을 만들려면 유약하고 동요하는 부르주아지의 머리 위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생 이어지는 망명 생활을 시작하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평생 이어질 망명 생활을 시작했다. 1850년 엥겔스는 자신에게 엄청난 개인적 희생을 요구하게 될 결심을 했다. 맨체스터에 있는 가족 회사 에르멘 앤드 엥겔스사에서 다시 일하기로 한 것이다. 엥겔스가 번 수입의 대부분은 마르크스와 그 가족의 부양에 쓰였다. 1850년부터 33년 뒤에 마르크스가 죽을 때까지 엥겔스가 스스로 짊어진 과제였다. 마르크스에 대한 개인적·정치적 애정에 더해, 그의 가족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가난을 겪고 있어서 엥겔스는 그런 결심을 했다.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가족을 극빈 상태에서 구하고, 마르크스가 이론적 연구를 발전시키도록 했다. 엥겔스 덕분에 마르크스 가족은 런던 북부로 이사 갔고,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게 됐으며, 딸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엥겔스는 에르멘 앤드 엥겔스사에서 일하는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 혁명이었기 때문이었다.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가족을 극빈 상태에서 구하고, 마르크스가 이론적 연구를 발전시키도록 했다. 엥겔스 덕분에 마르크스 가족은 런던 북부로 이사 갔고, 크리스마스

를 즐길 수 있게 됐으며, 딸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엥겔스는 에르멘 앤드 엥겔스사에서 일하는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 혁명이었기 때문이었다.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가족을 극빈 상태에서 구하고, 마르크스가 이론적 연구를 발전시키도록 했다. 엥겔스 덕분에 마르크스 가족은 런던 북부로 이사 갔고, 크리스마스

를 즐길 수 있게 됐으며, 딸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엥겔스는 에르멘 앤드 엥겔스사에서 일하는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 혁명이었기 때문이었다.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가족을 극빈 상태에서 구하고, 마르크스가 이론적 연구를 발전시키도록 했다. 엥겔스 덕분에 마르크스 가족은 런던 북부로 이사 갔고, 크리스마스

를 즐길 수 있게 됐으며, 딸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엥겔스는 에르멘 앤드 엥겔스사에서 일하는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 혁명이었기 때문이었다.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가족을 극빈 상태에서 구하고, 마르크스가 이론적 연구를 발전시키도록 했다. 엥겔스 덕분에 마르크스 가족은 런던 북부로 이사 갔고, 크리스마스

를 즐길 수 있게 됐으며, 딸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엥겔스는 에르멘 앤드 엥겔스사에서 일하는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 혁명이었기 때문이었다.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가족을 극빈 상태에서 구하고, 마르크스가 이론적 연구를 발전시키도록 했다. 엥겔스 덕분에 마르크스 가족은 런던 북부로 이사 갔고, 크리스마스

를 즐길 수 있게 됐으며, 딸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엥겔스는 에르멘 앤드 엥겔스사에서 일하는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 혁명이었기 때문이었다.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가족을 극빈 상태에서 구하고, 마르크스가 이론적 연구를 발전시키도록 했다. 엥겔스 덕분에 마르크스 가족은 런던 북부로 이사 갔고, 크리스마스

를 즐길 수 있게 됐으며, 딸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엥겔스는 에르멘 앤드 엥겔스사에서 일하는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 혁명이었기 때문이었다.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가족을 극빈 상태에서 구하고, 마르크스가 이론적 연구를 발전시키도록 했다. 엥겔스 덕분에 마르크스 가족은 런던 북부로 이사 갔고, 크리스마스

제1인터내셔널의 창립과 파리로의 교환

1860년대 들어 영국 노동계급 사이에서 국제주의 분위기가 형성됐다. 영국 노동자들은 미국 내전에서 북부 편을 들고, 1861년 가리발디가 이끄는 이탈리아 통일 운동을 지지하고, 폴란드의 민주주의 투쟁을 지지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1848년 혁명의 패배 이후 처음으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노동계급 조직에 직접 관여하기 시작했다. 국제노동자협회(제1인터내셔널)가 1864년에 창립되고, 1865년에 첫 대회가 열렸다. 제1인터내셔널의 정치적 발전과 존속에서 마르크스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구실을 했다.

인터내셔널은 매우 다른 정치 경향들의 쟁쟁이었다. 영국과 프랑스의 운동이 주축이었다. 영국인 지지자들은 주로 런던노동조합회의 쪽이었다. 그 지도자들의 정치는 마르크스의 정치와 거리가 멀었다. 그들이 인터내셔널을 만든 주된 목적 하나는 영국에서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외국인의 파업 파괴 활동을 막는 것이었다. 물론 그들은 다른 나라들에서 벌어지는 민주주의 운동에 열심히 연대했다. 프랑스인들은 프루동 추종자들이었고, 장인 사회주의를 지지했다. 이들은 소성상으로 돌아가자는 관점에서 자본주의를 비판했다. 그래서 국가가 적대적이었지만, 파업과 혁명에도 반대했다.

마르크스는 런던에 본부를 둔 인터내셔널 총령회의의 개막 연설문과 규약을 작성했다. 이때 엥겔스는 맨체스터에 있었는데, 인터내셔널 활동에 일상으로 참여하지는 못해도 정치와 국제 상황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었다. 1866년에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전쟁을 벌이자 엥겔스는 그 전쟁에 관해 글을 여러 편 썼다. 이상하게도 프로이센이 패배할 것이라고 잘못 예측했지만 말이다.

또, 엥겔스는 아일랜드 상황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1860년대 후반에 아일랜드는 최악의 위기를 맞이했다.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페니언 운동)이 영국 국가에 대항해 무장 저항을 벌였고, 이 투쟁이 영국 국내로 번져 영국 지배계급에 반대하는 투쟁이 벌어졌다. 맨체스터와 런던 같은 도시들에 거주하던 많은 아일랜드 이주민들이 그 투쟁을 지지했다. 엥겔스는 아일랜드의 역사를 쓰고 싶어했고, 1869년에 리지와 엘리너 마르크스와 함께 그 나라를 방문했다. 그가 마침내 에르멘 앤드 엥겔스사를 그만둔 뒤였다. 그는 귀국 주들에서 사들였기 때문이다. 영국 노동자들은 압도적으로 노예제에 반대했고, 북부의 승리를 지지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열렬하게 북부 편을 들었다.

미국 내전에서 영국 지배계급은 남부 연합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영국 경제에 매우 중요했던 면화를 남부 주들에서 사들였기 때문이다. 영국 노동자들은 압도적으로 노예제에 반대했고, 북부의 승리를 지지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열렬하게 북부 편을 들었다. 엥겔스는 처음에 독일 편을 들었다. 독일에 그의 서류대리 속에서 발견됐다.

당시 유럽의 정치 상황은 유동적이었다. 유럽 대륙의 두 강국인 프랑스와 독일이 1870년 가을에 전쟁을 벌였다. 엥겔스는 처음에 독일 편을 들었다. 독일의 팽창이 프랑스 황제를 폐위시키고 반동적 러시아의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당 엥겔스는 때때로 북부의 패배를 예측했다. 반면, 마르크스는 북부군의 승리를 예측했다.

1870~1871년에 프랑스에서 벌어진 사건들 때문에 인터내셔널 내부의 정치적 차이가 벌어졌다.

1870년 9월 프랑스 군대가 패배하고 나폴레옹 3세가 타도되면서 프랑스는 정치적 격변기로 들어갔다. 공화국이 선포됐다. 그러나 어떤 공화국인가 문제가 됐다. 제2공화국처럼 대자본의 이해에 근거한 지배가 계속되는 공화국인가? 아니면 노동자와 소상인들을 대표하는 정부인가? 다양한 지역 분기들이 일어났지만, 대부분 실패했다. 그러나 파리에서는 혁명적 정부의 가능성이 의제에 올랐다.

10월부터 파리는 프로이센 점령군에게 포위돼 있었다. 이에 대한 반발이 도시에서 급진화가 있었다. 새해 들어 급진화가 더 거세졌다. 프랑스 정부가 프로이센과 평화 조약을 맺은 뒤 포위가 풀렸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는 파리로 복귀하기를 거부하며 전무적인 대중이 무장해제를 할 때까지 베르사유에 머물렀다.

최초의 노동자 국가

3월 18일 혁명이 일어났고, 파리로 쫓겨나 수립됐다. 파리로쫓겨난 최초의 수립된 노동계급의 혁명적 정부였다. 여성들도 파리로쫓겨나 군사적으로 방어하는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파리로쫓겨나 마지막 시간과 1872년의 대부분을 파리로쫓겨나 망명자들(대부분이 영국으로 망명했다)을 지원하고 연대를 조직하는 한편, 인터내셔널 내부에서는 바쿠닌 같은 이우만이라는 제1인터내셔널 대안이 무장해제를 할 때까지 베르사유에 머물렀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1871년의 나

마지막 시간과 1872년의 대부분을 파리로쫓겨나 망명자들(대부분이 영국으로 망명했다)을 지원하고 연대를 조직하는 한편, 인터내셔널 내부에서는 바쿠닌 같은 이우만이라는 제1인터내셔널 대안이 무장해제를 할 때까지 베르사유에 머물렀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1871년의 나

마지막 시간과 1872년의 대부분을 파리로쫓겨나 망명자들(대부분이 영국으로 망명했다)을 지원하고 연대를 조직하는 한편, 인터내셔널 내부에서는 바쿠닌 같은 이우만이라는 제1인터내셔널 대안이 무장해제를 할 때까지 베르사유에 머물렀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1871년의 나

마지막 시간과 1872년의 대부분을 파리로쫓겨나 망명자들(대부분이 영국으로 망명했다)을 지원하고 연대를 조직하는 한편, 인터내셔널 내부에서는 바쿠닌 같은 이우만이라는 제1인터내셔널 대안이 무장해제를 할 때까지 베르사유에 머물렀다.

없다는 것이었다. 혁명가들은 낡은 자국의 국가를 해체할 태세가 돼 있어야 하고, 그 자리에 가장 완전한 민주주의와 새로운 권력 형태에 기반한 노동자 국가를 수립해야 한다. 엥겔스는 이것이 자신과 마르크스가 말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의미라고 했다.

러시아 볼셰비키 지도자 레닌은 엥겔스의 사상에 의지해서 《국가와 혁명》이라는 중요한 책을 썼다. 마르크스와 엥겔스, 그들의 파리로쫓겨나, 그들이 다른 좌파들(개혁주의자들)이나 바쿠닌 같은 아나키스트들과 자주받은 논쟁이 레닌에게 직접 영향을 미쳤다.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국가의 필요성은 파리로쫓겨나의 끔찍한 종말로 그 출발이 비극적으로 입증됐다. 유럽 도처에서 자본주의 권력의 지배자들은 파리로쫓겨나 분쇄에서 자신감을 얻었고, 인터내셔널을 마녀사냥하기 시작했다. 1872년 프랑스에서는 인터내셔널 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받게 됐다. 비스마르크는 반(反)인터내셔널 유럽 동맹을 제안했다.

반동으로 인터내셔널이 파멸했다. 영국의 개혁주의적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코뮌이 너무 혁명적이라며 지지하지 않았다. 다른 편에는 러시아 아나키스트 바쿠닌이 있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1871년의 나

마지막 시간과 1872년의 대부분을 파리로쫓겨나 망명자들(대부분이 영국으로 망명했다)을 지원하고 연대를 조직하는 한편, 인터내셔널 내부에서는 바쿠닌 같은 이우만이라는 제1인터내셔널 대안이 무장해제를 할 때까지 베르사유에 머물렀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1871년의 나

마지막 시간과 1872년의 대부분을 파리로쫓겨나 망명자들(대부분이 영국으로 망명했다)을 지원하고 연대를 조직하는 한편, 인터내셔널 내부에서는 바쿠닌 같은 이우만이라는 제1인터내셔널 대안이 무장해제를 할 때까지 베르사유에 머물렀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1871년의 나

마지막 시간과 1872년의 대부분을 파리로쫓겨나 망명자들(대부분이 영국으로 망명했다)을 지원하고 연대를 조직하는 한편, 인터내셔널 내부에서는 바쿠닌 같은 이우만이라는 제1인터내셔널 대안이 무장해제를 할 때까지 베르사유에 머물렀다.



1864년 마르크스와 그 딸들과 함께 찍은 사진 (앞줄 오른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로라, 엘리너, 예니, 엥겔스, 카를 마르크스)

독일 사회민주당의 기회주의와 투쟁하다

엥겔스는 1873년에 《자연변증법》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이 책을 위한 노트들을 썼는데, 완성하지 못했다. 이것은 과학 연구를 철학 사상에 적용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엥겔스의 가장 중요한 저술은 독일 사회주의 운동 안에서 점차 영향력을 늘려가던 사상과 별인 논쟁과 관련돼 있었다.

논쟁의 배경은 프랑스-프로이센 전쟁과 파리코뮌의 몰락이었다. 독일은 이제 프랑스를 제치고 유럽 대륙의 중심축이 됐다. 그러자 독일의 노동자 운동도 민족에 기반한 안정된 정당을 발전시키고 이제 막 등장한 의회 구조에 진출하고자 했다.

1870년대에 (엥겔스의 동료인 아우구스트 베벨이 이끄는)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은 세력과 라살의 사상에 영향받은 세력이 통합해 독일 사회주의노동자당SAPD를 만들었다.(1890년 사회주의자탄압법이 폐지된 뒤 당명을 독일 사회민주당SPD으로 바꿨다.) 이 정당은 독일 통일의 결과로 생겨난 새 의회에 처음부터 참여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그 당의 통합 강령인 고타 강령을 비판했다. 비(非)마르크스주의적 개념들을 아주 많이 채택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고타 강령이 개혁주의와 독일 국가에 순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봤다. 라살 지지자들은 부르주아 야당을 반대하고, 비스마르크 편인 군주와 동맹하는 것을 찬성했다.

엥겔스는 《반뒤링론》을 써, 독일 당 안에서 영향력을 키우던 오이겐 뒤링박사의 사상을 비판했다. 엥겔스와 마르크스는 뒤링이 청년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 같은 당의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극도로 심란해 했다. 뒤링의 사상에는 ‘공상적 사회주의’의 요소들이 있었다.

《반뒤링론》은 1877년 당 기관지 〈전

진〉에 기고한 기사들에서 시작했다. 엥겔스 기사의 논조와 내용이 일부 사람들에게 “불쾌하게” 여겨졌고, 당 지도부는 그 기사들을 〈전진〉의 과학 섹션으로 보냈다.

그러나 엥겔스는 굴하지 않고 논쟁했다. 그 덕분에 새 세대의 사회주의자들이 마르크스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 그 책은 독일에서 금방 판매 금지됐지만, 그 책의 일부분이 대중적인 소책자 《공장에서 과학으로 — 사회주의의 발전》으로 출판돼, 다양한 유럽 언어들로 번역되고 많이 팔렸다. 이 소책자는 (뒤링의 이름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공상적 사회주의 사상가들의 장점과 한계를 다루면서도,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가장 잘 다룬, 가장 쉬운 입문서 중 하나였고 지금도 그렇다.

이 책의 놀라운 대목 중 하나는 엥겔스가 매우 빠르게 바뀌는 세계를 포착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엥겔스는 현대 자본주의 경제에서 국유화가 한 구실을 지적했다. 그는 철도, 우편 제도, 다른 통신 수단에 대한 국가 통제가 지배계급의 효율적인 자본 축적에서 필수적이라고 봤다. 그는 그런 국가 통제를 모종의 사회주의와 동일시하는 사람들을 혹평했다.

‘수정주의’

《공장에서 과학으로 — 사회주의의 발전》의 성공 덕분에 국제적으로 새 세대의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명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독일 당에서 맞닥뜨린 정치적 문제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1879년 비스마르크가 당의 영향력 확대를 막으려고 사회주의자탄압법을 통과시켰다. 그 법은 사실 당의 성장을 막지 못했다. 그러나 당 지도자들은 매우 타협적이고 자신의 정치를 숨기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당의 의원단은 말랑말랑

한 정책들을 지지했고, 그 지도자 빌헬름 리프크네히트는 사회민주당이 법에 복종할 거라고 의회에서 선언했다.

엥겔스는 독일 당의 지도부에 화가 났다. 그는 《반뒤링론》이 부당하게 비판받았다고 생각했고, 자신과 마르크스가 한 충고가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당 지도부가 사회주의자탄압법에 대해서조차 기회주의적이고 심지어 개혁주의적으로 대응한다고 봤다. 사회주의자탄압법이 폐지된 뒤 당 강령이 개정됐을 때에도 당 지도자들이 과거의 실수나 마르크스의 비판을 인정하지 않자 엥겔스는 더욱 격분했다. 독일 당은 엥겔스의 여성 동안 근심의 원천이 됐다.

엥겔스 사후에 벌어진 ‘수정주의’ 논쟁은 당의 이론가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이 주도했다. 그는 체제가 모순 없이 그저 확장될 것이고 거의 자연스럽게 사회주의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엥겔스는 이런 생각이 이미 독일 당의 1891년 개정 강령(에어푸르트 강령)에 있다고 봤다. 엥겔스는 빌헬름 리프크네히트가 마르크스의 《고타 강령 비판》을 출판하지 못하게 한 것에 언제나 격분했다. 그래서 엥겔스는 자신이 나서서 《고타 강령 비판》을 출판했다. 독일과 다른 나라들의 젊은 동지들이 마르크스주의가 실천에서 진정으로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 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면서 독일 당의 기회주의적 경향을 비판했다. 기회주의는 훗날 독일 당 안에서 지배적 경향이 된다. 그만큼 엥겔스의 격정이 기우가 아니었던 것이다. 심지어 엥겔스가 살아 있는 동안에도 당 지도부는 그의 글을 검열했다. 예컨대, 엥겔스가 사회의 폭력적 전복에 대해 쓴 것을 삭제했다. 따라서 엥겔스가 독일 사회민주당의 개혁주의의 씨앗을 뿌렸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마르크스 사후 새 세대 사회주의자들에게 마르크스주의를 전하다

엥겔스의 연인 리지 번스가 1878년에 죽었다. 3년 후에 마르크스의 아내 예니도 죽었고, 1년 뒤에 그녀의 큰 딸 예니가 죽었다. 마르크스는 오랫동안 아프다 폐종양이 악화돼 1883년 3월 14일에 죽었다. 큰 딸이 죽은 지 두 달 뒤였고 네 살짜리 손자 해리 롱게가 죽기 며칠 전이었다. 손자는 마르크스의 무덤에 묻혔다.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임종을 지켜봤고, 다음 날 미국에 있는 오랜 친구 프레데릭 아돌프 조르게에게 편지를 썼다. “인류는 머리 하나를 잃었다. 그것도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머리를.”

마르크스의 죽음에 엥겔스가 엄청난 상실감을 느꼈을 것임을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엥겔스가 활동을 멈출 사람은 아니었다. 엥겔스는 마르크스가 죽은 뒤에도 12년을 더 살았는데, 엥겔스의 말년은 짧은 시절만큼 일이 많았고 만족을 몰랐다.

그 시절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사상을 옹호하고 설명하고 명확하게 하는데 삶을 바쳤다. 《자본론》 2권과 3권을 작업했다. 엥겔스가 없었다면 이 책들은 아마 햇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마르크스의 딸들인 로라와 엘리너를 돌봤다. 죽는 날까지 그는 그들에게 돈

을 지원했고, 유언장을 통해 그들이 평생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돈을 남겨 줬다. 여러 나라들, 특히 독일과 영국에서 조직을 건설하려는 사람들에게 조언했다.

엥겔스의 이론적 생산 능력도 약화되지 않았다 1884년에 그는 그의 가장 유명한 책들 중 하나인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을 출판했다. 여러 의미에서 선구적인 책이었다. 가족 형태와 구조의 발전을 사회의 특정 계급이 차지한 사유재산의 출현과 연결시키며 여성 차별이 계급사회의 산물임을 설명했고,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확고히 지지했다. 평생 동안 엥겔스는 여성 차별을 소유 관계의 비정상적 산물이고, 그런 소유 관계가 사라지면 없어질 것으로 이해했다. 그래서 그는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자유주의적 논평가들보다 훨씬 더 진보한 관점을 발전시켰다. 당시 자유주의자들은 모두 너무나 자주 여성을 평등한 존재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나약한 존재로 봤다.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의 핵심적 의의와 몇 가지 오류에 대해서는 정진희, ‘엥겔스와 여성 차별의 가원 다시 보기’, 〈노동자 연대〉 164호를 보시오.)

엥겔스의 마지막

1880년대 후반에 사회주의자들의 국제적 연결망이 성장해 제2인터내셔널이 창립됐다. 첫 대회가 1889년 파리에서 개최됐는데, 바스티유 감옥 습격 100주년 기념을 겸했다. 엥겔스와 엘리너 마르크스가 아주 긴밀하게 개입해 그 조직에서 중심적 구실을 했다.

그러나 엥겔스는 제2인터내셔널 소속 정당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에 위험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들의 성공이 오히려 이론적·정치적 문제들을 은폐할 수 있었다. 그의 관심사는 언제나 그 당들이 적절한 대중적 노동자 정당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계급투쟁에 실질적 뿌리가 없는 종파를 반대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아나키스트 경향에 극도로 비판적이었고, 독일 사회민주당의 편을 들었다. 노동조합과 의회 속에서 활동할 필요성, 대중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에 대한 엥겔스의 강조는 옳았다. 그러나 독일 당이 훗날 체제에 기회주의적으로 적응하면서 이런 강조를 왜곡하기도 쉬웠다. 그럼에도 독일 당 지도자들의 기회주의를 엥겔스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바로 그 지도자들이 엥겔스의 다른 혁명적 글들을 검열했다. 엥겔스는 1895년 8월 5일에 후두암으로 죽었다. 독일·오스트리아·프랑스 정당의 지도자들과 러시아 혁명가 베라 자슬리치와 영국 가스 노동자 지도자 월 손이 참석한 장례식에서, 유언에 따라 엥겔스는 화장됐다. 엘리너 마르크스가 그의 재를 이스트본 근처의 바다에 뿌렸다.

엥겔스의 활동은 차티스트 운동에서 현대 노동조합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시기에 걸쳐 있다. 그는 자본주의 발전에서 가장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던 시기에 살았다. 독일이 가장 큰 변화를 겪었다. 그는 유럽과 미국의 사회주의 운동에 지울 수 없는 큰 족적을 남겼다. 그는 늘 겸손했지만, 엄청나게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는 그저 논평가나 공론가가 아니었다. 언제나 노동자들과 차별받는 사람들의 활동과 투쟁에 고무되고 열광한 혁명가였다.

참고 문헌

토니 클리프, ‘프리드리히 엥겔스’, 《마르크스21》 35호(2020년 9~10월호)
커밀라 로일, 《삐딱이들을 위한 엥겔스 가이드》, 노동자연대, 2020 (근간)
Lindsey German, ‘Life of a Revolutionary’, *International Socialism* 65, 1994
John Rees, ‘Engels’ Marxism’, *International Socialism* 65, 1994

추천 소책자

근간

삐딱이들을 위한
엥겔스 가이드
커밀라 로일 지음, 노동자연대

영국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전 대표 축출 시도 당이 맛이 갔음을 보여 주다

영국 노동당 대표 키어 스타머가 노동당 전 대표이자 좌파인 제러미 코빈을 당에서 몰아내려 한다. 이에 영국의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 찰리 킴버가 코빈을 방어하면서도, 진정한 변화는 의회와 노동당 바깥에서 가능함을 주장한다.

우리는 제러미 코빈에 대한 공격에 격분한 모든 활동가와 사회주의자들과 뜻을 같이한다. 우리는 노동당 대표 키어 스타머의 좌파 공격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지지한다.

하지만 코빈에 대한 공격은 노동당의 근저에 깔려 있는 문제를 선명하게 드러내 보였다.

스타머가 코빈을 몰아낸 것은 노동당이 기업주들의 체제를 더 잘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서다.

전염병 대유행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지만 스타머는 친기업적 경제 정책과 단절하지 않을 것이다.

스타머는 소유 문제를 근본에서 건드리지도 않을 것이다. 자본주의적 이윤 논리의 지배가 아니라 민주적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는 데도 말이다.

스타머는 군대와 국가기구를 문제 삼지도 않을 것이다. 오히려 스타머의 핵심 노선은 노동당을 “애국적”이고 군사력을 충실하게 지지하는 세력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스타머는 보리스 존슨 정부와 “국민적 단합”을 추구하느라 몇 달을 보냈다. 재앙적인 코로나바이러스 대책으로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고 있는 바로 그 정부와 말이다.

그래서 스타머는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한때”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브리스틀에서 시위대가 노예상 동상을 쓰러뜨린 일을 규탄했다.

이것이 노동당 정치의 민낯이다. 선거 공학에만 몰두하고, 의회를 중심으로 돌아가며, 체제 내에서 변화를 추구한다.

[2015년] 코빈을 당 대표로 만들기 위해 노동당으로 몰려든 코빈 지지자들은 이전 노동당 지도자들의 행태에 역겨움을 느낀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게 코빈은 희망이자 다른 앞날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다.

이후 5년 동안 거의 모든 좌파들은 당 대표가 된 코빈이 과거 노동당 정부의 경험을 떨쳐내고 노동당을 쇄신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에 사로잡혔다.

분명 코빈의 부상은 저항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사회주의에 관해 토론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양면적이었다. 많은 활동가들이 노동당의 품 속으로 파고들었고 그 바깥에서는 그 어떠한 동원도 좀처럼 하려 들지 않았다.

국민보건서비스(NHS)를 지키거나 긴축에 반대하는 시위는 빈도와 규모가 줄어들었다.

언제나 이를 정당화한 것은 코빈이



코빈은 영감과 희망을 줬지만, 좌파가 노동당의 선거적 성공에 기대게 하는 효과도 냈다. 2016년 6월 영국 의회 앞에서 열린 코빈 방어 시위

총리가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었다. 이런 희망은 2019년 총선으로 산산조각 났다.

이제는 코빈을 총리로 만들 수 있느냐가 아니라 코빈이 당에 남아 있을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좌파는 실패를 망각하는 데에 능하다. 물론 우리 모두는 적극적인 저항과 단결된 행동에 신경을 집중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제 대차대조표를 살펴볼 때가 됐다.

노동당은 진정한 변화와 사회주의를 실현할 수단이 못 된다. 노동당은 국회의원에 의존하고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중심적 구실을 하며 선거와 의회를 성스럽게 여긴다. 노동당의 이런 특징은 당의 모든 요소에 영향을 끼친다.

단지 스타머만이 지배계급과 노동당 우파에 기꺼이 양보하려 한 것은 아니다. 모든 노동당 지도자가 그랬다. 코빈은 [기존의] 트라이던트 핵미사일 폐기 입장에서 물러섰고,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결과를 번복시키기 위한] 브렉시트 제2차 국민투표 요구를 수용했으며, 스코틀랜드 의회가 [스코틀랜드 독립을 위해] 또 다른 국민투표를 여는 것에 반대했다.

코빈 지도부 하에서도 당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있었다.

코빈은 이른바 노동당 내 유대인 혐오 “문제가 정치적인 이유로 극적으로 과장됐다”고 말했다는 이유에서 당원 자격을 정지당했다. 이런 문제를 과장한 것은 “당 안팎의 정적들과 다수의 언론들”이었다.

그런데 코빈 지도부 하에서도 크리스 윌리엄슨 노동당 의원이 거의 똑같은 이유로 징계를 당했다.

노동당이 유대인 혐오로 얼룩져 있다는 거짓 비방에 대한 노동당의 대처를 두고 [당시] 윌리엄슨은 이렇게 말했다. “너무 회피적이었고 지나치게

후퇴했다. 지나치게 변명조였다.”

그 정도 말도 당에서 쫓겨나기에는 충분했던 것이다.

전쟁광

좌파 인사인 켄 리빙스턴도 코빈 지도부 하에서 당 밖으로 밀려났다. 그러나 제국주의 전쟁광 토니 블레어는 무사히 남아 있다.

과거에도 노동당은 주요 좌파 인사들을 축출했다. 1930년대에 노동당 총리였던 램지 맥도널드가 노동당을 탈당하고 보수당과 함께 국민정부에 합류했을 때 노동당 의석은 52석으로 쪼그라들었다.

대부분의 노동당 당원들은 맥도널드의 배신에 경악했고 당 내에서 좌파가 성장했다.

1932년 당 대회는 “노동당의 주 목표는 사회주의 확립”이라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934년 노동당 내 좌파 단체인 ‘사회주의자 동맹’은 실질적 세력이었다. 지도자 스탠포드 크립스는 노동당에게 내전을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그럴듯해 보이던 사회주의자 동맹의 영향력은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에 반대하자 눈 녹듯 사라져 버렸다.

사회주의자 동맹 회원들은 당 바깥의 단체들과 함께 활동했었다. 예컨대 공산당원들과 함께 파시즘과 전쟁에 반대하는 공동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노동당 지도부는 공산당원과 함께 활동하는 자는 누구든 당장 쫓아내 버리겠다고 했다. 결국 1937년 노동당은 사회주의자 동맹의 해산을 결정했다.

사회주의자 동맹은 여기에 굴복하고 뿔뿔이 흩어졌다. 그럼에도 크립스와 다른 주요 좌파 인사였던 어나이린 베번은 구제받지 못했다. 둘 다 노동당

에서 축출됐다.

1939년 당대회에서 크립스의 축출안은 210만 표 대 40만 2000표로 통과됐다. 베번은 재입당이 허용됐지만 “충성 서약”에 동의하고 나서야 그럴 수 있었다.

이후 5년 동안 크립스는 복당할 수 없었다. 복당 후 크립스는 노동당 주류의 입장을 지지했다.

노동당은 체제가 인정하는 방법을 넘어서자는 얘기로 노동당의 메시지를 “더럽히는” 듯한 당원들을 족족 축출해 왔다.

그럴 때마다 좌파는 후퇴하거나 제 거당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 대표였던 코빈이 축출된 것은 분명 특별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어느 정도 역사적으로 되풀이된 일이기도 하다. 앞으로 노동당 좌파는 대부분 당에 남아서 코빈을 복권시키는 데에 매진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당과 결별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 이런 논의는 몇몇 지역 의원들과 노동조합 간부들을 기반으로 하는 듯하다. 이런 논의는 현실화돼야 한다.

그러나 걸가죽만 다른 똑같은 짐승인 “노동당 2.0”을 세우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의회주의 모델에 머무르는 여러 프로젝트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정치적으로 붕괴했다.

스페인을 보자. 스페인에서는 2008년 경제 위기와 그에 따른 긴축에 맞서 고무적인 투쟁이 벌어졌다.

대중적 광장 점거와 파업이 벌어지고, 주택 퇴거와 빈곤에 맞선 거대한 운동이 일어났다.

이런 운동들의 정치적 초점으로서 2014년에 포데모스가 창당됐다. 포데

모스는 큰 성공을 거뒀고 곧바로 유럽 의회에 진출했다.

2015년 총선에서 포데모스는 5분의 1을 득표하고 국회에서 69석을 확보했다. 그러나 갈수록 투쟁에는 힘을 덜 쏟고 의석수 세기에 집착했다.

이제 포데모스는 사회민주주의 우파 정당인 사회당(PSOE)과 연립정부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정부는 인간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재앙적인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책을 펴고 있다.

2015년 그리스에서는 급진 좌파 정당인 시리자가 선거에서 승리했다. 유럽 전역에서 이를 축하하는 분위기가 가득했다.

그리스판 영국 노동당이라 할 만한 그리스 사회당(Pasok)은 신뢰를 잃었고 시리자가 이를 대체했다. 그러나 시리자는 연사는 강경했음지언정 여전히 체제 내에서 변화를 추구했다.

총리가 된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트로이카”(유럽연합 · 국제통화기금 · 유럽중앙은행)가 강요한 긴축을 되돌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은행가들과 유럽연합 기구들은 유권자들의 의사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이들은 [그리스를 외채로 협박해 긴축을 강요하는] “재정적 물고문” 정책을 내놓고 그리스를 굴복시키려 했다.

결국 시리자는 트로이카의 요구를 국민투표에 붙였다. 그리스 대중은 61퍼센트의 반대표로 긴축을 거부했다.

그러나 시리자는 저항을 이어갈 계획이 없었다.

의회, 힘 있는 자들과 협상하기, 유럽연합 잔류에 매달리던 시리자는 결국 폭삭 주저앉았다. 1주일도 안 돼 치프라스는 전 보수당 정권보다도 더 가혹한 긴축 정책을 펴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에서는 많은 이들이 버니 샌더스에게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 변화를 꾀한 샌더스는 결국 신자유주의 후보인 조 바이든의 간판 구실을 하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투쟁을 우선시하고 선거보다 거리와 작업장을 중시하는 정당이다.

노동당 좌파는 의회 밖 투쟁의 필요성을 얘기할 때조차 투쟁을 선거 정치에 종속시킨다.

지난 한 해 동안 일어난 고무적인 투쟁들은 대부분 의회 영역 바깥에서 벌어졌다. 기후 위기 반란이나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 대입 성적을 둘러싼 저항[영국 정부는 코로나19로 대입 시험을 열지 못해 알고리즘으로 성적을 매겼다]가 거센 항의에 직면했다. NHS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투쟁 등이 그런 사례다.

이런 저항이 더 벌어져야 한다. 그리고 투쟁과 혁명적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한 정치로 전체 판을 바꿔야 한다.

미래는 노동당 바깥에 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2729호 / 번역 이원웅

폴란드 사회주의자가 전한다

낙태권 시위가 나라를 변화시키고 있다

엘리시브 로근리엔·안제이 제브로프스키

폴란드에서 대규모 낙태권 시위가 성장 중이다. 주최 측과 시의회에 따르면, 10월 30일 바르샤바에서 열린 행진에는 10만 명이 참가했다. 수도에서 시위를 하려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였다.

같은 날 다른 도시들에서도 큰 시위가 열렸다.

이번 운동은 2016년과 2018년에 비해 훨씬 더 크다. 이전에도 정부는 더 가혹한 낙태 금지 조치를 취하려 했다가 두 번 다 실패했다. 30년 전 집회가 합법화된 이래 최대 규모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경찰은 관례적으로 집회 참가 인원을 축소해서 발표하지만, 10월 28일 경찰 발표에 따르면 10월 22일 시위가 시작된 이래 410건의 시위가 있었고 연인원 43만 명이 참가했다.

시위는 축제 같으면서도 분노가 넘쳐났다. 사람들은 테크노 비트와 수백 년 된 폴로네즈[폴란드의 춤곡 양식]에 맞춰 춤을 췄다. 래퍼들은 “법과정의당(PiS) 옛 먹여라” 하는 가사로 랩을 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종이 팻말을 만들어 왔다. “혁명은 여성이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느낀다. 내가 결정한다” 같은 구호들이 적혀 있었다. 영어로 된 구호도 많았고, 특히 언어 유희가 많았다. “법과정의당 꺼져라(PiS off)”나 “여자들은 즐길 기본권을 원할 뿐(Girls just want to have FUNDamental rights)” 같은 구호가 있었다.

시위 참가자 중에서는 10대, 20대 청년들이 두드러지지만, 시위가 워낙 커서 모든 연령대에서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참가했다. 여성들이 주도하고, 남성들이 여성들을 지지한다.

극도로 보수적인 법과정의당(PiS) 정부가 흔들리고 있다. 시위가 시작된 이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10퍼센트 가량 줄었다.

시위를 촉발한 10월 22일 헌법재판소 판결은 태아에 심각한 기형이 있어도 낙태를 못하게 한다.

법과정의당 대표 야로스와프 카친스키가 그 판결을 지지했다는 것을 모두가 안다. 정치 전문가들은 카친스키를 흔히 명석한 전략가로 칭송하지만, 카친스키는 자신이 위험천만한 명칭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왔다. 그는 엄청난 수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에

기대 사람들을 거리로 나오지 못하게 하려 했다.

시위대는 코로나19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시위대는 카친스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리로 나왔다며 그를 비난한다. 이제 카친스키는 그 어느 정치인들보다 미움받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자택 앞에서 여러 차례 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법과정의당 지지세가 강한 소도시에게까지 번졌다. 예컨대 폴란드 북부의 소도시 노비드부르그단스키에서는 농부들이 트랙터를 길게 늘어세운 뒤 “여성 말고 바이러스나 잡아라”라는 구호를 걸고 도로 봉쇄를 지원했다. 폴란드 남부의 소도시 도프치체에서는 1000명이 시위에 참여했다. 이곳은 이번 여름 대선에서 법과정의당 후보 안제이 두다가 67퍼센트를 득표한 곳이고 인구는 6000명 정도다!

갈팡질팡

정부는 갈팡질팡하고 있다.

한편으로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유화적 어조를 취하고 있다. 그들은 현재 판결을 살짝 우회하는 혼란스러운 대안을 제시했지만 낙태권 지지 측은 모두 이를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성들은 최소한 현재 결정을 철회하길 원한다. 갈수록 더 많은 여성들이 산모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 낙태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다.

다른 한편으로 즈비그니에프 지오브로 법무부 장관 겸 검찰총장은 시위 주최 측을 징역 8년형에 처하겠다고 위협 중이다. 시위 주최자들은 이 협박을 웃어넘겼다.

정부 각료들은 이 시위가 가톨릭교회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려는 운동인 것처럼 묘사한다. 국영 방송에서는 교회 벽에 구호가 적힌 모습이나 지난 일요일 몇몇 여성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장면이 방영됐다.

이런 식으로 카친스키는 역풍을 일으키려 한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교회를 지켜달라고 호소한다. 그전에 파시스트인 로베르트 봉키에비치는 교회를 방어할 “국민방위군” 창설을 선언했다. 그는 11월 11일 독립기념일마다 파시스트 세력의 주도 하에 열리는 연례 행진의 주요 조직자다.

하지만 역풍을 일으키려는 시도는 먹히지 않고 있다. 10월 30일 바르샤바에서 열린 거대한 시위에서, 시위대



분노가 폭발하다 낙태권을 지지하며 집회 합법화 이래 최대 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10월 30일 10만 명이 참가한 바르샤바 시위 모습

는 한 유명 교회를 지나쳐서 행진했다. 파시스트 수십 명과 경찰과 헌병 수백 명이 그곳을 지키고 있었다. 그 광경은 우습기 이를 데 없었는데, 그들은 아무도 공격하려 들지도 않는 곳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친정부 성향의 노총인 연대노조의 지도자 피오토르 두다는 부끄럽게도 조합원과 동조자들에게 이른바 “국민방위군”의 행동에 가담하라고 요구한다. 노동조합원들더러 파시스트와 동맹을 맺으라는 것은 가히 범죄적이라 할 만하다. 다행히도 연대노조 평조합원들은 두다의 뜻을 완전히 거스르고 있다. 이 조합원들 다수는 틀림없이 현재 개인으로서 여성들의 시위에 참가하고 있을 것이다.

파시즘 반대

10월 30일 파시스트들은 낙태권 시위대에 폭죽을 던졌다가 두 차례 쫓겨났다. 파시스트들은 시위 자체를 위협하지는 못하지만, 몇몇 사람들이 대열 바깥에서나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공격

당했다.

극우 반대 구호가 모든 주요 시위에서 나온다. 11월 11일을 앞두고 낙태권 운동은 훨씬 더 많은 파시즘 반대자들을 만들어냈다.

10월 26일 전국의 시위대는 저녁 퇴근 시간대에 도로를 봉쇄하는 데 성공했고, 이것은 이번 주에도 반복될 것이다.

“전국 여성 파업” 시위 조직자들은 10월 28일 하루 파업을 잡았다. 학생, 교사, 강사들의 압력에 밀려, 몇몇 대학과 학교들이 휴교하고 원격 수업을 취소했다. 개별적으로 일손을 놓기로 한 사람들도 있다.

대중 파업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작업장에 초점을 맞추자 노조들은 여성들의 시위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도록 압력을 받았다.

성명을 발표한 노조 중에는 양대 노총 중 하나인 폴란드노총(OPZZ)과 전국 최대 노조인 폴란드교원노조(ZNP)가 있다. 폴란드교원노조에는 교사와 대학 강사, 학교와 대학의 여러 노동자

들이 조직돼 있다.

광원들 사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노조인 [독립노조] “1980년 8월” 노조는 시위를 지지하면서 국가 탄압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른 노조들도 지지를 표명했는데, 이 중에는 “석유가스노동자(Oil and Gas Workers)”와 갠노노동자노조(ZZPD)가 있다. 갠노노동자노조는 또 다른 광원 노조인데, 시위의 상징인 번갯불 모양을 자신들의 로고에 넣었다.

이런 지지는 중요하며 실질적 파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현실적 과제다. 이 운동은 매우 깊게 뿌리를 내렸다. 노동계급 거주지에서 나온 사람들이 시위에 참가하고 있다. 젊은 이들은 자신의 부모를 끌고 온다.

전국에 급진화와 반란의 분위기가 충만하고, 이 분위기는 얼마든지 다른 영역으로도 번질 수 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729호
번역 김동욱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회비약정액

가입 신청일

회비약정액

가입 신청일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구독기간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구독기간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4909-2026, mail@workersolidarity.org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6491-2792, ws@wspaper.org

트럼프 “승리” vs 바이든 “끝나지 않았다” 선거가 끝나도 안갯속 미국 대선

김준호

11월 4일 오전 2시경(워싱턴 DC 현지 시각, 한국 시각으로 4일 오후 4시경), 도널드 트럼프가 사실상 대선 승리를 선언했다. “환상적인 결과다. 나가서 기록적 승리를 축하하자.” 이 기사를 쓰는 4일 오후 5시 현재 집계로도, 트럼프는 이미 지난 대선 때보다 많은 표를 얻었다. 경합주에서도 모두 우세하다.

반면, 민주당 대선 후보 바이든도 경합주들 모두에서 “승리를 낙관”한다며, 모든 표를 개표하기까지 기다리자고 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여러 날 동안 쟁투가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바이든의 낙승을 장담하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되든, 현재까지 상황만으로도 한 가지는 분명하다. 미국 지배계급 주류가 거의 일지단결해 트럼프에 맞섰는데도 (심지어 공화당 핵심 인사 몇몇도 “당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투표해 자랑스럽다”며 바이든 지지를 ‘인증’했다!) 트럼프가 도저히 무시 못할 득표를 했다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결집

트럼프는 이번 대선을 심각한 압력 속에서 치렀다. 두 가지가 결정적으로 중요했다.

첫째, **코로나19 전염병 대유행**이다. 코로나19는 미국 사회의 첨예한 모순을 밝히 드러냈고, 가뜰이나 2007~2008년 경제

위기에서 회복하지 못한 미국을 1930년대 대불황 이래 최악의 침체로 몰아넣었다. 유색인종, 노동계급이 그 대가를 치렀다. 수십만 명이 사망하고 수천만 명이 일자리와 생계를 위협받았다.

이것이 촉매가 돼 둘째 사건,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벌어졌다. 1960년대 이후 최대의 반란 물결이었다. (관련 페이지: ‘인종차별 반대 항쟁 분출하다 “정의 없이는 평화 없다”’)

이 사건들은 미국 사회에서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 계급 양극화도 훨씬 첨예해졌지만 트럼프와 지배계급 주류 사이의 쟁투도 심해졌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처럼 이 모든 상황을 ‘아웃사이드’ 운운하며 회피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재선을 위해 **두 압력에 대응하며 더 오른쪽으로** 기울었다. 트럼프는 인종차별을 부추기고 좌파를 공격했으며, 중첩된 위기에 압착된 인종차별적·보수적 하층 중간계급들을 자기 투표 부대로 결집시키려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극우·파시스트들이 크게 고무됐다.

일례로 트럼프는 경제 위기의 피해를 크게 입은 오하이오·미시건주(州) 등 ‘러스트 벨트’ 지역에서도 일정 정도 결집 효과를 누린 듯하다. 실업·폐업으로 생계가 파탄난 사람들 중 일부에게 트럼프가 경기 대침체에서 그나마 자신들을 보호할 방안으로 여겨져서일 것이다.

하지만 바이든은 트럼프에 맞서는 결집축이 되기에 부족했다.

바이든이 지금의 **중첩된 위기를 만든 체제의 지배자들을 대변**하는 것으로 비쳤기 때문이다. 바이든은 정치 이력 내내 신자유주의의 핵심 기수 구실을 했고, 온갖 쟁점에서 노동계급에 반하는 입장에 섰다. 심지어 바이든은 전염병 대유행 상황에서도 전국민 단일건강보험에 반대했고, 막대한 이윤을 챙기는 민간 보험회사들 편을 들었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분출했을 때도 바이든은 **운동과 철저히 거리를 뒀다**. 정치 이력의 시작을 흑백 분리 지지자들과 함께했고, 수많은 흑인들을 감옥에 가둔 ‘폭력범죄 단속 및 법집행법’을 작성한 자답다.

트럼프가 인종차별과 극우를 부추기고 천대받는 모든 사람들을 가혹하게 공격했는데도, 민주당은 바로 그 트럼프를 낳은 **위기에 책임이 있는 신자유주의의 전사**를 경합 후보로 내세운 것이다. 고통 받는 수많은 대중에게 바이든이 매력 있는 대안으로 비치기 어려웠을 것이다.

버니 샌더스와 미국의 ‘민주적 사회주의’ 운동이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지배계급 주류 후보(클린턴/바이든)에 맞서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그 나팔수 노릇을 한 것이 철저히 잘못된 대목이다.

무엇이 필요한가

현재까지 바이든이 총 투표 수에서 트럼프에 약간 우세하지만, 미국의 비민



승리 선언하는 트럼프

주적 선거 제도 때문에 그것이 곧장 트럼프 낙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온갖 쟁투가 뒤이어 있을 것을 양측 모두가 분명히 하고 있다.

무엇이 필요할까? 선거 결과를 둘러싼 법리적 쟁투의 향방에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가 대변하는 체제의 패악에 맞서 **지금부터** 다시 저항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는 온전히 **노동계급 대중**의 몫이다.

고(故) 하워드 진은 2004년 조지 W 부시의 재선 결과를 두고 이렇게 썼다. “역사가 진보하고 부정의한 질서가 무너진 것은 ... 정치인들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직접 행동했을 때만 가능했다.

“비민주적인 선거의 한계에 더는 갇히지 않고, 그동안 선거기간이라고 제대로 하지 못한 일들을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 ... 불만과 분노를 새로운 힘으로 바꿔, ... 무엇을 반드시 이뤄야

하는지에 관해 대담하고 분명하게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흑인 목숨을 위한 파업’의 핵심 조직자 중 한 명이었던 애시-리 우다드 헨더슨도 투쟁을 준비하며 이렇게 밝혔다. “우리는 구원자가 권좌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다음 목표를 위해 전념해야 합니다.”

그런 투쟁을 **지금부터** 현실화해야 한다.

※ 전문은 웹사이트를 보시오.

노동자연대 공개 온라인 토론회

흔돈의 미국 대선, 미국은 어디로?

일시: 11월 9일(월) 오후 8시

발제: 김준호 (노동자 연대) 기자

문의: 02-2271-2395, 010-4909-2026 (문자 가능)

참여 방법: 유튜브 "노동자연대TV" 채널, 페이스북 "노동자 연대" 페이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 대선과, 트럼프가 일으킨 정치적 지각 변동

11월 3일(현지 시각) 치러질 미국 대선은 불확실한 것 투성이지만, 하나만큼은 확실하다. 공화당과 그 당의 사회적 기반 사이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것이다.

1861~1865년 남북전쟁 이래 공화당은 대자본가들의 정당이었다. 20세기 초, 석유 기업 스탠더드오일 창립자 존 데이비스 록펠러는 오늘날의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이었다. 록펠러의 손자 넬슨 록펠러는 록펠러 가문에서 대통령을 배출한다는 할아버지의 야망을 이루지 못했지만, 뉴욕주 주지사를 거쳐 [공화당 정부] 부통령 자리에 올랐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민주당 정부는 1930년대 대공황기에 미국 자본주의를 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 대자본가들은 루스벨트의 ‘뉴딜’ 개혁을 극구 반대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그때나 지금이나 줄곧 친자본 정당이었다. 1990년대 빌 클린턴 정부와 2009~2017년 버락 오바마 정부 모두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강화했다.

공화당도 기업·부유층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마르크스주의 역사가 마이크 데이비스는 텍사스 석

유 사업가 출신인 조지 W 부시의 정부(2001~2007년)를 두고 “미국석유협회(API)의 정치 담당부”라고 했다. 2012년 대선에서 오바마에 패한 공화당 대선 후보 밋 롬니는 헤지펀드 그룹 베인캐피털의 공동 창립자였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 상위권 기업들의 경영자 중 15명이 트럼프를 지지한다. “하지만 그것의 곱절이나 되는 대기업 CEO들이 [민주당 대선 후보] 바이든을 후원했다고 미국 경제 매체 ‘마켓워치’는 추산했다. 디즈니의 밥 아이거, 듀폰의 에드워드 브린, 제약기업 머크의 켄 프레이저 등이 대표적이다. <폭스뉴스> 회장 루퍼드 머독의 아들 제임스 머독은 민주당의 최대 후원자로 손꼽힌다.” 최상위 기업들의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77퍼센트가 바이든을 찍겠다고 답했다. 트럼프는 그보다 작은 기업들 사이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는다. 이들은 트럼프가 국제 경쟁에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리라 기대한다.

트럼프는 자기가 ‘슈퍼 부자’라고 과시

하고 부풀리지만, 트럼프는 주요 기업가들 사이에서 아웃사이더이다. 예일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제프리 소넨펠트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이렇게 말했다. “몇 년 전에 우리 CEO 모임에 트럼프를 데려오려 했다면, 일류 CEO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데려오지 말라. 우리가 보기에 트럼프는 일류 CEO가 아니다.’”

‘아웃사이드’

실제로 트럼프는 자신이 아웃사이더라는 점을 이용해 2016년 대선에서 승리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기업 중심 세계화의 피해자가 됐다고 느끼는 일부 백인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분노에 호소했고, 거기에 응한 일부는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대선 판도를 바꾸기에 충분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대유행과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에서 받는 압력이 커지면서, 트럼프는 이 전술을 더한층 강화했다. 여러 면에서 이는 1968년 대선에서 리처드 닉슨을 당선케 한 “남부 전략”을 극단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다. 당시 닉슨은 흑인 평등권 운동과 흑인들의 도심 항쟁에 대한 인

종차별적 반발을 이용해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었던 남부 백인 유권자들의 표를 끌어오려 했다.

그러면서도 닉슨은 기업주들의 지지를 붙잡아 놓을 수 있었다(적어도 워터게이트 추문이 터지기 전까지는 말이다). 트럼프는 이런 줄타기에 성공하지 못한 듯하다. 양극화를 부추기는 언사를 하며 “안티파”를 비난하고 극우 무장 집단들에 호소한 덕분에 트럼프는 인종차별적 백인들 사이에서 기반을 다졌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면서 대기업들을 겁에 질려 도망치게 했다.

트럼프가 선거에서 패하면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약속하기를 거부하자 이런 공포는 더 커졌다. 10월 27일에 트럼프는 선거일이 지나고도 개표가 계속되는 것은 “완전히 부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상공회의소,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을 비롯한 친기업 로비 단체 8곳은 즉각 성명을 발표해, 개표가 지연되더라도 “참을성”을 발휘하라고 호소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양당 체제는 미국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데에 매우 유용했다. 이 체제를 지키는 것이 트럼프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가 기업들에 제공할 그 어떤 떡고물보다도 더 중요하다. 바이든이 설령 부자 증세 공약을 이행하더라도 미국 지배자들의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미국 국가의 운전대를 잡는 게 더 안전하다.

그러나 이번 대선과 그 직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 소넨펠트는 “공화당이 ‘전문성을 중시하는 기업 간부들과 ‘춘구석’의 반지성주의적 음모론 지지 집단들’을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같은 당 안에 묶어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공화당이 대자본의 믿을 만한 도구로 기능하는 능력을 약화시킨 것은 어쩌면 트럼프가 남길 커다란 유산일지도 모른다.

번역 김준호

※ 이 글은 미국 대선 전인 11월 2일에 작성됐다.

